



13805 과천시 희망길 36

과천외고 제2025-122호

가정통신문

전화 : 070-4881-3400

교무부 : 070-4881-3451

행정실 : 02-6677-5726

2025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3호 배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25. Vol. 03

발행인: 박길한
발행처: 한국청소년연구원/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전화: 044-415-2203 / FAX: 044-415-3399
주소: 3014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제작국: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보는 마음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와 친구

학부모 소식지



존중의 언어, 가정에서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차용우
서울대학교 고등학교 교사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갑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처음 사회성을 배우는 곳은 다른 아동 가정이다.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언어 속에 존중의 깊이를 봄 때, 학교폭력 예방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다.

존중의 언어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중과 감정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담긴 대화 방식이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내 마음을 이해해”, “~해줄 수 있겠나?”와 같은 좋은 말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다. 실제로 상당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글러지 않아주며 “내 이야기를 들으니 미친 마법이었구나”라고 반응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학생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와의 활동을 스스로 끌어온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무심한 비난이나 가쁜 말, 조롱이 일상화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그 만큼 습관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학생들 간에 “쟤수 없어”, “여자”와 같은 단절적 표현이 문의식으로 일상이처럼 뛰어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가정에서 이어져 한 만에 습관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존중의 언어는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오프라인 대화보다 메신저나 SNS를 더 자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나 비하 표현을 무심코 사용하기 쉽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案을 다루다 보면 학생들 간의 온라인 대화에서 승관적으로 ‘죽을래?’와 같이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나,

특정 대상을 심하게 비하하는 욕설이 서용되면서 갑동미 폭발해 고무 관계가

크게 틀어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당시자는 학교폭력 피해가 아니라 ‘장난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학교폭력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9%는 부모와 교민을 거의 나누지 않으며, 6.6%는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정 내 대화 시간과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존중의 언어 습관이 절실히 필요성을 시사한다.

부모가 먼저 존중의 언어를 실천해야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 존중과 공감이 담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태도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와의 일상 대화 속에서 부모로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고, 존중하는 어휘를 사용하기

둘째, 자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луш아 경청하며, 질문을 통해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셋째, 같은 상황에서도 존중의 언어로 차분히 대화 이어가기

넷째, 식사나 가족 모임에서 하루 감동을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따뜻한 존중의 문화가 형성될 때, 학교폭력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단순히 교사의 생활교육이나 제도적 정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정에서의 대화 습관, 부모와 자녀 간의 혼란 머뭇 면이 사생이나 일로 고무보다 중요한 도매가 된다. 가정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존중의 언어가 학교에서 흘러 퍼질 때, 폭력이 아닌 배려와 공감의 자리 같은 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폭력일까? 장난일까? – 경계없는 사이버 언어의 무게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재주

상대방에게 나쁜 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표현

회피

상대방이 자가 나도록 놓아두거나
악을 퍼리는 표현

조롱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현명 심사 비하남기리는 표현

화상

상대방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폭행
직접 오자리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표현

화상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나 저속한 언어로 표현



실생활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습관

온라인에 글을 쓰기 전 적절 손글씨로 먼저 확인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즉각적인 감정 표현이나 오해를 줄이는 네 도움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이버 언어 폭력 현황(청소년)

* 사이버 언어 폭력 유형은 평균 기록 및 피해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출처: 202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회

자녀와의 공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요!

공감 미안?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공감이 친밀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신호

말수가 줄어들거나 표정이 어둡다.

학교나 학원을 빠지려 한다.

일주가 짜증스럽고 거칠며 공격적이다.



힘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

1. 힘든 감정을 알아주는 말

"조금 힘든가보네.", "마음이 속상하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 자녀의 힘든 감정과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 대화의 체크박스를 수 있습니다.

2. 힘든 감정을 풀어놓도록 하는 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지 얘기해줄 수 있어?"

3. 수용하는 말

"아~ 그로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네."

4. 공감의 표현

"--해서 --마음이 들었구나.", "--에 --생각이 들어 --감정을 느꼈구나."

5.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니?",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힘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

1. 부정하는 말

"네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이건 힘든일이 아니야"
→ 자녀의 힘든 감정과 행동 등을 부정하는 투의 말은 즉각적인 반발을 유발하여 대화의 문을 닫게 합니다.

2. 비난조의 말

"왜 또 그래?", "징징거리지 좀 마. 엄마도 힘들어."
→ 가장 미리야 하는 말로 공격으로 받아들이자 분노를 유발하고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이야기에 대한 실부른 격려

"간될 수 있어. 이거내이지, 잘 참아내이지"

아이의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어하거나
마이너 어플케이션을 찾지 못하는 경우

"기분과 관련해서 자꾸 떠오르는 이미지나 일이 있을텐데
그게 무엇인지 얘기해줄래?",
"떠오르는대로 이야기하면 돼."

이자영(서울디지털대학교 섬유설계학과 교수)

2025 언어문화개선주간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 안내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란?

일상의 언어 습관을 스스로 진단해봄으로써 언어생활을 청취하고, 주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① doran.edunet.net 접속
② '진단해요' 클릭
③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 클릭

- ④ '진단해요' 클릭
⑤ 자녀 학년에 맞는 앱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검색하세요

일상대화

언어생활

동양언어

갈등언어

사업대화

여행언어



2025년 10월 1일

과천외국어고등학교장